

결혼 늦어지는 여성 '난자 냉동'으로 가임력 보존

건강 바로 알기 난자냉동기술

기광수
시얼병원 생식의학연구소장

#. 27세 미혼여성 A씨는 오랜 외국 유학생활 중, 3년 전부터 월경기간 중 잠치 못할 심한 복통 및 허리통증이 있어 귀국한 김에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진단으로 한쪽 난소내막종(난소종양 일종) 진단을 받았으며, 고민 끝에 복강경수술을 통해 난소 혹 일부를 제거해 정상호르몬 조식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았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호르몬치료를 4개월 동안 받았다. 수술전 난소기능을 예측하는 항물러관 호르몬(AMH)결과가 30대 후반으로, 수술 후 AMH 추적검사는 이미 정상난소조직이 병변에 의해 파괴된 소견으로 40대 여성의 난소기능으로 저하됐다. 담당의사에게 난소기능이 떨어져 임신에 불리한 상황을 들었으며, 결혼 계획이 미뤄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난자냉동(동결) 기술'을 선택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고령의 미혼자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평균 0.7대로 OECD 국가 중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인구중 난임 진단 환자 수는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난임 진단 환자 수 해마다 증가
출산 장려 보완책 중 하나로 주목
과배란 유도→난자채취→동결 진행
생존율 높이기 위해 35세 이전 시행

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다 최근 3년 평균 약 5%씩이나 증가하며 난임 여성 연령 또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난자동결기술이 출산 장려의 보완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난자동결기술=우선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과배란유도법(과배란주사 사용)후 건강한 난자를 채취하고 동결한다. 원하는 시기에 해동하고 수정란을 생산해 자궁내 배아 이식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난자동결기술은 월경이 시작된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여성의 난소기능은 만 35세부터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동결 난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5세 이전에 하는 것을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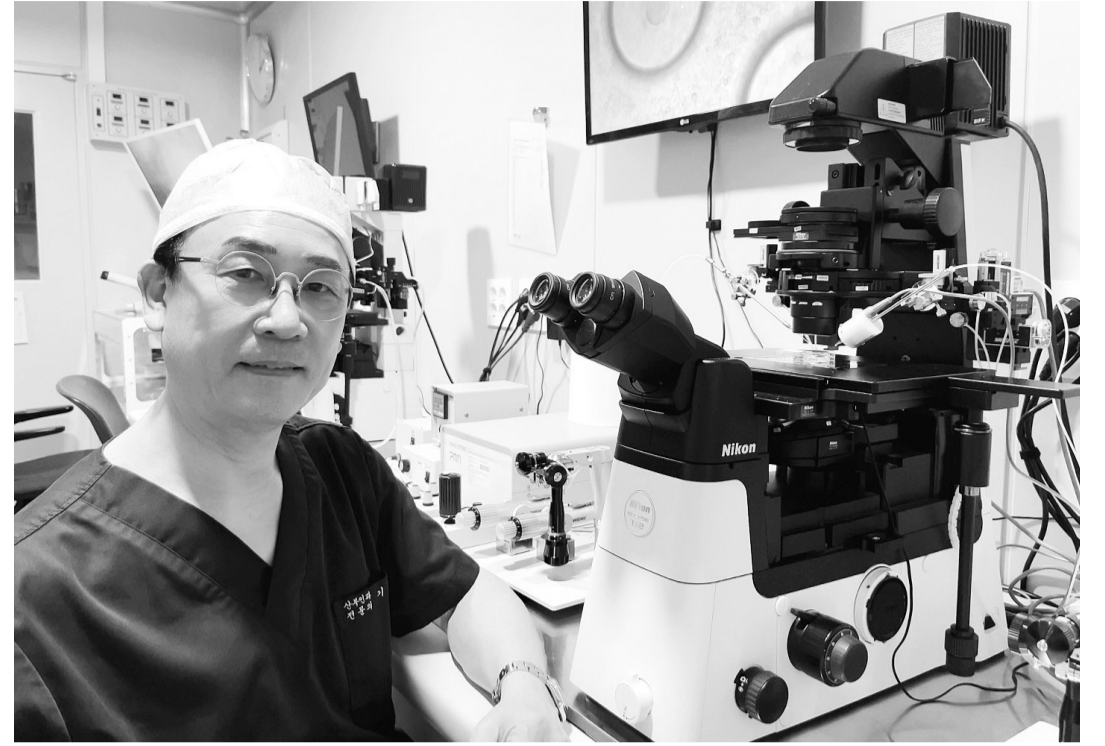
난자냉동을 통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난소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수술 전후(난소의 자궁내막종, 난소종양 등) ▲원인불명의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AMH수치가 낮게 진단된 경

우)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앞둔 경우(자궁경부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가임력 보존을 위한 미혼 여성(결혼시기를 미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여러 가지 전문 검사를 통해 현재 본인의 난소기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난소기능은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결과 값이 여성의 나이에 따라 측정되는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난소 예비력이 더 이상 저하되기 전에 '난자 냉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난자냉동 시술과정=먼저 의료진과 진료 및 검사를 하고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동결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생리 2-3일째 내원해 과배란유도를 시작하고, 난포가 충분히 자라고 성숙된 것으로 판단되면 시기에 맞춰 난자를 채취한다. 이후 초저온 냉각 상태로 동결해 특수 냉동고에 보관하면 생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후, 필요할 시 해동해 체외수정술을 이용해 수정란을 확보할 수 있다.

임신을 위해서 권장되는 난자냉동 개수는 연령대별로 다르다. 35세 미만인 경우 10-15개, 35-37세인 경우 15-20개, 38세 이상은 20개 이상의 난자가 있어야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여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난자의 질이 떨어지고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높다. 또 한 번에 채취되는 난자의 수 또한 적기 때문에 임신율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만약 난자냉동을 결정했다면 35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된 난자의 해동 과정을 체크하는 시얼병원 기광수 소장.

난자냉동과정은 시험관 시술과정과 비슷하지만 지금껏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비급여로 진행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달 초 서울시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타 지자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난자냉동은 수정란이나 정자 냉동과정보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해동 난자의 생존율은 의료기관의 수준과 배양실 연구원의 경험 등 냉동된 난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숙보관된 난자는 평균적으로 70-80%이다. 상대적으로 시술건수가 많은 난임전문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년기 고혈압 방치하면 치매 위험 42% 높아

韓·美 등 15개국 3만4천여명 분석

노년기에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려면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미국의학협회(AMA)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COS-MIC)은 전 세계에서 이뤄진 고혈압과 치매 관련 17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

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고혈압은 치매의 가장 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에서는 중년기 고혈압의 경우 모든 원인의 치매 위험을 약 60%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약 25%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노년기 고혈압은 이런 연관성이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수축기혈압이나 확장기혈압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근거 수준은 높지 않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그동안 나라별로 이뤄진 역학 연구에

참여한 60~110세 고령자 3만4519명(평균나이 72.5세)을 대상으로 평균 4.3년에 걸쳐 노년기 고혈압 치료가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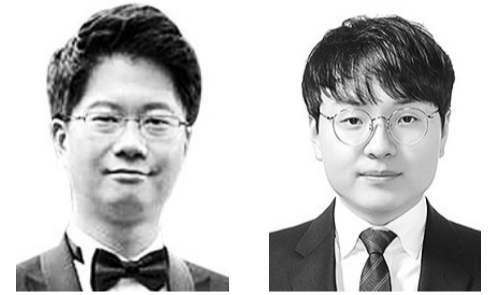
이 결과 고혈압인데도 항고혈압약 등으로 치료 받지 않은 환자 그룹은 건강한 대조군에 견줘 치매 위험이 42%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런 치매 위험은 고혈압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도 26% 높았다.

반면 노년기에 고혈압을 적극 치료한 그룹의 치매 위험은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현재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최선이다. /연합뉴스

조선대병원 안과 고재용 교수 안광학사업단 '안과 수술용 흡수제' 안정성 국제학술지 게재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 안과 고재용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안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지원사업단(이하 안광학사업단) 연구팀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인 'Cutaneous and Ocular Toxicology'에 국내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안과 수술용 흡수제(오큐셀)의 안정성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고재용 교수 박건우 전공의

조선대 안광학사업단 수혜기업인 '(주)오큐텍'의 핵심 기술이 담긴 오큐셀은 2020년부터 조선대 안광학사업단의 장비를 이용해 제품 안정성에 대한 사업단 자체 시험과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미국식품의약국(FDA) 등록을 완료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안과 박건우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에 사용하는 국산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

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오큐셀'은 조선대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총 52개의 병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국제학술지 게재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음이 입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당뇨병 진단 연령 빠를수록 기대수명 줄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분석

2형 당뇨병은 진단 연령이 빠를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킵토지 통계역학 교수 연구팀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 국가 19개국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연령이 원인별 사망률, 총사망률,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라이프 사이언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위험 요인, 심혈관 질환 결과, 사망에 관한 전향적 동일집단 연구 종합자료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자료 등 두 대규모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했다.

전체적으로 당뇨병 진단 연령이 10년 빠를수록 기대수명은 3~4년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3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같은 연령의 사람보다 14년 일찍 사망했다.

4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보다 10년 일찍, 5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6년 일찍 각각 사망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의 사망 원인은 혈관 질환, 비종양성 질환과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질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비종양성 질환은 신경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질환 등이었다. 당뇨병과 기대수명 사이의 연관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두드러졌다. 또 기저질환 위험이 가장 낮은 사람이 당뇨병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른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한 사람은 고혈압, 비만, 혈당 조절 약화, 동맥경화성 지질(proatherogenic lipids) 과다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이전에 발표된 일이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록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